

#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는 의학의 보고... 연구는 미미

〈寶庫〉

### 구병수 동국대 일산병원장, 연구소 설립 제안

#### 의료관련 경전 400편

구병수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11월 28일 열린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 국제학술대회 '불교와 의학의 만남'에서 불교학 연구를 제안했다.

부처님은 중생의 생노병사 일대사에서 오는 번뇌를 해결하신 분으로 대의왕(大醫王)이라고도 불린다. 실제 많은 경전에서는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과 가르침을 통해 병자가 깨닫고 스스로 병을 치유하도록 이끌었다.

불교의 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구병수 원장은 '불교 의학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발제에서 의학의 불교사상적 근거와 그 응용방법을 설명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사고와 힘의 논리가 팽배함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심적, 육체적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또 자살과 학대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구 원장은 이날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를 초월하는 면과 의학의 삶

에 대한 욕망은 서로 상반된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 고통을 해결하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불교의학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구 원장은 "새로운 사상과 조류는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때만이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며 "불교의 학은 몸과 마음을 조절한다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란 의문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불교가 사회 각 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하려면 보다 대중들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의 발전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 원장은 "불교의학은 아직 미미하지만 한의학과 간호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며 불교의학 분야를 소개했다.

이날 구 원장은 발제에서 <동의보감> '내경편'을 예로 들어 불교 의학의 사상적 기반을 들었다.

구 원장은 "동의보감"에서는 불교는 사람을 지수화풍 네 가지 구성요소로 보고 인연에 의해 모였다 사라지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 <동의보감>은 도가 역시 불교의 지수화풍 사대를 인용해 가합이라는 단어로 이를 표현하고 있



병원불자연합회의 스리랑카 의료봉사활동. 구병수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불교 교리에 기반한 불교의학의 체계화를 제안했다.

다"고 말했다.

구 원장은 "<동의보감>이 현대에 들어 다시 각광 받는 이유는 유희도의 학설을 취함에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쉽게 편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구 원장은 "하지만 불교에는 <불설바라문피사경> <안반수의경> 등 의료와 관련된 400여 경전이 있음에도 아직 그 연구가 미비하다"며 아쉬움을 토론했다.

구 원장은 "최근 생명관과 건강관은 변화하고 있다"며 "궁극적으

로 이 모든 것을 통섭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 원장은 끝으로 "동국대 일산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질환, 생리, 병리, 해부, 명상, 심리학, 한의학의 관점에서 연구의 장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또 구 원장은 "불교의 자비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간호대학의 특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제세미나에서는 니

에칭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의 '선종의 수지가 양생에 미친 영향' 발제와 박성식 동국대 교수의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불교의 영향' 발제가 진행됐다.



구병수 원장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불국사 석가탑 금갔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원인 조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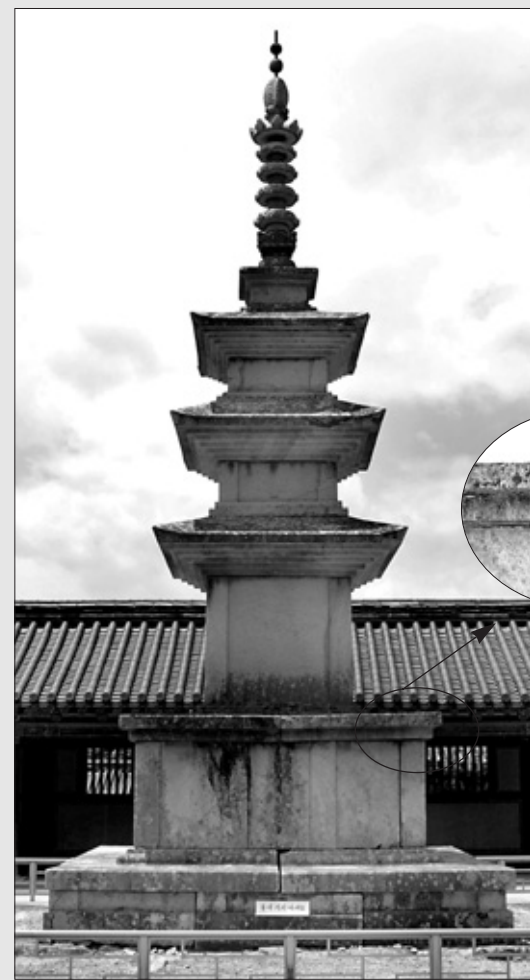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2월 1일 중요문화재 정기 안전점검 실시 과정에서 국보 제21호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의 기반석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균열은 석탑 동측 상층기단 갑석(甲石) 부분에 길이 1320mm, 최대폭 5mm 규모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균열 원인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200년 전 조성된 석탑이 노후화·풍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진도 2.3~2.8의 지진이 있었지만 균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다음 주 중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균열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균열부분

기단석 균열로 인해 문화재청 조사에 들어간 석가탑.

## 종밀 선사 회통에 종교갈등 치유책 있다

### 김진무 교수, 불·유·도 합일 이끌어낸 '삼교회통' 재해석

#### 선학회 추계학술대회

최근 불교계는 특정 종교계의 그릇된 신념과 믿음으로 인한 폐해 행위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며 다종교·다문화 되가는 사회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각각의 깨달음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종교가 진리라면 각 종교는 서로 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러한 물음에 답을 내놓은 대선사가 있었다. 바로 규봉 종밀 선사다. 종밀 선사는 28년간 유학에 전념했다가 불교로 당대의 사상을 융섭해 새로운 학

문체계를 완성했다.

한국선학회(회장 송묵)는 11월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종밀 선사의 시대 의식과 선사상'을 주제로 2010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제2 발제자로 나선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는 '종밀선사의 시대 의식과 삼교회통' 발제를 통해 당대 규봉 종밀 선사의 선교회통과 유교, 도교와의 회통인 삼교회통의 시대적 배경과 그 영향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종밀 선사가 살고 있던 당나라 시기는 중국불교가 극도로 성숙해

고학과 선학이 모두 발전한 시대였다. 하지만 정치, 사회적으로는 안사의 난을 겪는 등 매우 혼란해 세 사상의 출현을 필요로 하던 때이기도 했다.

김진무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초기 중국불교는 중국사상의 주류였던 유·도교와 차별이 없음을 강조해 후대에 삼교회통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불교의 기저에는 원융과 회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는 한순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식계층이던 사대부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회구하게 했다. 우두

종과 조사선이 부각됐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당시 불교는 유·도교의 거센 반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삼교회통'과 불교 내 선교를 회통시키는 사상을 낳게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종밀 선사의 의도는 종밀 선사 입적 후 회통법난이 발생했지만 불교뿐만 아니라 중국사상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종밀 선사의 영향으로 송대에 이르러 불교는 선교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또 리학(理學)의 흥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려 보조 국사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러한 종밀 선사의 영향은 현재 종밀 선

사의 도서(都序)가 강원 등에서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데서도 드러난다.

김 교수는 끝으로 "종밀의 회통 사상은 단순한 사상적 수용을 넘어, 다양한 사고에 대한 포섭이며 이는 다종교·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준다"며 종밀 선사의 원융과 회통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제1발제자는 박인성 연세대 교수의 '종밀의 지(知) 사상의 문헌적 기원과 사상적 전개', 제3 발제로는 씨시핑 중국 남창대 교수의 '종밀 선사의 원융사상이 송명 불교에 미친 영향'이 진행돼 학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김진무 교수

## 밝은 사람들, 행복을 논하다

12월 11일 제9회 학술연찬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를 주제로 제9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의 '초기불교에서 본 행복', 동국대 경주캠퍼스 최원철 교수의 '대승불교의 행복론', 동국

대 박영환 교수의 '선불교의 행복론', 서울대 강상진 교수의 '서양철학의 행복론', 서울대 권석만 교수의 '긍정심리학의 행복론', 서울과기대 이진경 교수의 '행복의 윤리학, 행복의 사회학' 발표된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이날 발제된 자료는 12월 경운주사에서 교재로 묶어 출간할 예정이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 옥천범음대학

### 2010년 동계방학 특강안내

과목	교수	기간	수업요일	수업시간
홍고	김능화 스님 (영산재 법배 이수자, 법배 박물관 관장,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외래교수)	2010년 12월 27일 ~ 2011년 1월 24일 (5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
도량장엄	이경암 스님 (영산재 장엄 준비유자)	2010년 12월 28일 ~ 2011년 1월 25일 (5주)	매주 화요일	
법고무	이기봉 스님 (영산재 법배 준비유자)	2010년 12월 29일 ~ 2011년 2월 16일 (6주) *구정연휴기간 2월2일 ~ 2월9일 제외	매주 수요일	

※ 각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접수방법 : 특강 수강신청서 1부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 ▶ 접수문의 : 02)392-3234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이기봉 합장

##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입종안내

본 종단은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제2010-17호)를 받은 정법수호 종단입니다. 종헌 제80조에 의거 사설사업을 창건한 승니 및 신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과 상속권을 영구히 보존합니다. 제방에 참신한 종도들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입종서류

- 법복 착용한 명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 내외 사진 각 1매
- 주민등록 앞뒤 복사 1통
- 입종원서 (종단양식)

### 행자모집

승려(재가승 포함)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나 사암(포교원)을 운영하시려는 분의 교육을 위해 본산에서 행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총무원에 문의)

### 교부서류

입종 완료와 동시에 주지 임명장, 사찰등록증, 승려증, 본종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 수계득도

본 종단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득도, 사미(나), 비구(나) 수계를 미루어 오신 스님들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금강계단을 설단합니다. (총무원에 문의)

입종문의 : 전화 054)231-3101 (총무원) / 팩스 054)292-930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474번지 구운사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